

한성대신문

한성은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를 기대하고 있을 새내기. '우리 학교의 캠퍼스는 어떤 모습일까?' 정문을 통과해 캠퍼스에 들어서면 맞은편에 연구관이 보인다. 연구관 왼쪽으로는 창의관, 오른쪽에는 미래관이 위치해 있다. 외관만 봐서는 어떤 건물인지 가늠

하기 어렵다. 캠퍼스를 거닐수록 등장하는 새로운 건물들. ▲공학관 ▲인성관 ▲상상관 등 빼곡한 16개의 건물과 높고 낮은 계단들에 새내기들은 갈 곳을 잃었다.

한성대학교는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질 새내기를 위해 한성대신문사가

'신문으로 보는 캠퍼스 탐방'을 준비했다. 건물 내 다양한 시설 소개는 물론 숨겨진 이동 통로까지. 한성대학교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본사와 함께 캠퍼스 탐방을 떠나보자.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김기현 기자 kimgihun30@gmail.com



▲연구관 1층에 있는 상상파크

정문 맞은편에 보이는 연구관은 '상상라운지', 카페 '그라짜에' 등이 위치한 '상상파크'와 교수 연구실로 이뤄져 있다. 연구관 지하 2층에서는 정문과 잔디광장으로, 1층에서는 지선관과 공학관으로 향할 수 있다.

지선관은 회화과 수업이 진행되는 ▲실기실 ▲관화실 ▲사진 스튜디오

등이 갖춰진 건물이다. 공과대학 소속 트랙의 수업은 주로 공학관 실습실에서 열린다. A동과 B동으로 나뉘어 있는 공학관은 3층부터 서로 연결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A동과 B동 지하 1층에는 각각 '상상파크 플러스'와 공과대학 학생회실이 존재한다.

공학관 A동과 B동이 둘러싼 건물은 본교 기숙사인 상상빌리지다. 지하에 있는 편의점, 헬스장 등의 부대시설은 기숙사생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공학관 A동과 B동 사이에 위치한 상상빌리지



▲창의관 지하 1층의 매점(좌)과 학생식당(우)

정문을 기준으로 왼편에 자리 잡은 창의관에서는 주로 디자인학부 소속 트랙 수업이 이뤄진다. 창의관 지하 1층에는 학생식당과 매점이 위치해 있다. 정문에서 창의관으로 향하는 길 오른편에 학생식당 출입구가 있지만, 건물 내 계단을 통해 이동할 수도 있다.

창의관 2층의 연결다리를 건너면 공학관과 지선관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있는 문을 통해 인성관으로도 갈 수 있다. 인성관은 1층부터 5층까지 동아리연합회실을 비롯한 각종 동아리방으로 구성돼 있다.

한성여중과 창의관 사이에 위치한 낙산관에는 대강당과 체육관 등이 위치한다. 대강당은 축제, 초청강연 등 많은 학생이 모이는 행사가 진행될 때 사용되곤 한다.



▲상상관 1층 로비의 학생원스톱지원센터(좌)와 엘리베이터 옆에 위치한 건강관리실(우)

정문 바로 오른편에 있는 통유리 건물은 미래관이다. 1층부터 6층까지는 학술정보관이며, 지하 1층에서 ▲카페 '그라짜에' ▲출력센터 ▲학생상담센터 등을 찾을 수 있다. 학생상담센터 옆 계단을 오르면 우촌관 2층과 연결된다.

우촌관에는 대부분의 단과대학 학생회실이 모여 있다. 5층에 있는 통로를 지나면 진리관 3층과 상상관 2층으로 이동 가능하다. 상상관 2층의 통로를 통해 카페 '말고당'과 미래관 3층에 있는 '학술정보관'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상상관에는 ▲학생원스톱지원센터

▲건강관리실 ▲통합기자재실 ▲총장실 ▲강의실 등이 마련돼 있다.

진리관에는 중앙운영위원회실, 학생 장학팀과 일부 단과대학의 교학팀 등이 있다. 그 옆에는 디자인아트교육이 진행되는 학습관, 강의·실습실로 쓰이는 탐구관, 그리고 학군단이 나란히 위치한다.



우촌관과 진리관 사이 공간(우진사)▶



한성의 인재로 거듭나는 시간

MON	TUE	WED	THU	FRI
<p>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들 수 있는 시간표는 대학 생활의 매력 중 하나로 여겨진다. 긴장된 마음으로 수강 신청을 준비할 새내기의 시간표에는 이미 정해진 교과목들이 있다. 본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해야 하는 기초교양과목이다. 기초교양과목이란 학생들을 본교 인재상인 ▲창의적 전문인 ▲포용적 사회인 ▲열린 세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준비된 필수 교양이다. 그렇다면 기초교양과목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선배들의 생생한 후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p>	<p>영어커뮤니케이션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글로벌 소통능력과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일반 교과목은 1시간 수업당 1학점으로 환산되지만, 영어커뮤니케이션은 한 학기에 3시간 수업을 들어야 2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p> <p>‘청취와 회화’, ‘독해와 작문’으로 구성된 본 교과목은 각각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교수가 진행한다.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두 번 수강해야 하는데, 수강 순서는 단과대학별로 일괄 편성된다. 올해 1학기 청취와 회화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디자인대학이, 독해와 작문에는 IT공과대학·창의융합대학이 배정됐다. 2학기에는 강의가 교차 편성된다.</p> <p>같은 단과대학 내에서도 성적별로 반이 나뉠 예정이다. 분반은 2월 말에 치러질 ‘신입생 반편성고사’를 통해 결정된다. 변은재(인문 2) 학생은 “기초 문법과 문장 구조를 익히고 의사소통을 위한 기반을 키울 수 있었다. 외국인 교수님과 직접적인 소통, 학우와 토론 위주의 수업은 영어 회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됐다”며 수강 후기를 전했다.</p>			<p>글로벌 시민의식 분야 및 사회봉사 과목은 ‘글로벌 시민의식 분야’와 ‘사회봉사’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해 총 2학점을 채우면 된다. 글로벌 시민의식 분야는 한 학기에 2학점, 사회봉사는 1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만약 사회봉사를 선택한다면 두 학기 동안 ‘사회봉사 I’, ‘사회봉사 II’를 순서대로 모두 들어야 한다.</p> <p>글로벌 시민의식 분야는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사람과 전 세계 공동의 문제들을 알아가는 교과목으로, 열린 세계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1·2학기를 통틀어 세부 목표가 다른 총 9개의 교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박소희(IT 1) 학생은 “단순히 외국인뿐만 아니라 약자, 이방인을 대하는 법을 배우며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p> <p>사회봉사는 시민의식과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는 교과목으로, 자기관리능력과 글로벌 시민의식을 키운다는 목표가 있다. 사회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 배우며 봉사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봉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김태완(상상력 1) 학생은 “수업과 봉사를 병행하면서 봉사를 왜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었다”라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p>
<p>사고와 표현은 자기관리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공동체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총 두 번 수강해야 하는데, 1학기에는 ‘읽기와 쓰기’, 2학기에는 ‘발표와 토론’을 배우게 된다. 과제의 제출 및 첨삭은 본교 글쓰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p> <p>사고와 표현 강의를 통해 향상된 능력들은 이후 수강하게 될 다른 강의의 학습 및 과제 수행에서 빛을 발한다. 글쓰기·발표·토론·말하기 능력 향상은 물론 새내기들이 과제를 할 때 많이 헛갈려하는 출처 표기법, 논문 인용법 등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 고은비(ICT 3) 학생은 “주제만 제시되는 리포트가 아니라 수업에서 토대를 쌓아 가는 과정이어서 좋았다. 인용하는 법이나 각주를 다는 방법 등은 추후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p>	<p>디자인씽킹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과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조별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학우와의 의견 조절 등을 경험하고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과 같은 여러 아이디어 발상 과정을 배우며 창의력 역시 강화시킬 수 있다.</p> <p>지난 12월 13일 상상력교양대학에서 개최한 공모전 ‘디자인 씽킹에 빠지다’에서 Best Design-Thinker상을 수상한 3조의 이경석(IT 1) 학생은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며 문제 해결의 방식을 익힐 수 있었다. 조원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집단의 창의성을 이용하는 경험은 추후에 있을 집단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p>		<p>문제해결을 위한 코딩 첫 걸음은 4차 산업 시대에 컴퓨터 능력의 중요성을 고려한 교과목으로, 창의력과 융합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컴퓨터 능력이 필요시 되는 직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코딩은 기초 소양으로 여겨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코딩의 기본 지식을 배우며 컴퓨터 작업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을 도출해내는 등 창의력과 융합능력의 강화 역시 가능하다.</p> <p>대부분의 강의에서는 ‘Python’을 사용하지만 교수 재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대어를 원한다면 본교 기자재 대여 서비스를 통해 빌릴 수 있다. 지난 12월 20일 상상력 교양대학에서 진행된 ‘문제해결을 위한 코딩 첫 걸음 프로그램 자율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정현우(IT 1) 학생은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며 어려웠던 코딩이 친숙하게 다가왔다. 다른 관련 강의에서도 수업을 이해하기 쉬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p>	
		<p>삶과 꿈은 학생이 자기 개발과 함께 삶의 철학을 배우는 교과목으로, 자기관리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키운다는 수업 목표를 가진다. 진로에 대한 설계와 실현 목표 등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강의에서 진행되는 조별 활동을 통해 팀 프로젝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다른 기초교양과목과 달리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도 삶과 꿈의 특징 중 하나다. 김연지(인문 2) 학생은 “진로나 미래만큼이나 중요한 내 마음가짐과 시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p>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제가 그냥 도서관으로 보이시나요?

배움의 공간, 본교 도서관 학술정보관은 어떤 곳일까? 학술정보관은 학술정보자원을 소장하고 구성원의 연구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지식 창출의 공간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술정보관에 대해 알아보자.

학술정보관은 1층부터 6층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입구는 미래관 2층이다. 2층 로비에는 ▲인포메이션데스크 ▲학술정보관 장실 ▲학술정보팀이 존재하고 학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도 마련돼 있다. 1층은 국내외 참고도서 및 단행본을 보존하고 있는 공간으로 ▲연속간행물 ▲신문 ▲학위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언어학이나 문학 분야의 자료를 열람하고 싶다면 3층,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를 열람하고 싶을 경우에는 4층을 방문하면 된다. 5층에는 인문·자연과학 분야의 자료가 보관돼 있다.

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다양하다. 3층에는 ‘창의열람실’과 ‘리닝커먼스’가 존재한다. 창의열람실은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제로 편안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같은 분위기다. 리닝커먼스에는 소파형 의자와 좌석형 공간이 마련돼 잠시 공부하기에 좋다. 리닝커먼스 옆 출입구는 상상관 2층으로 연결돼 있다. 5층에

위치한 ‘상상커먼스’도 창의열람실과 비슷하게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이다. 자유로운 학습이 가능하고 배치된 잡지를 열람할 수도 있다.

3층부터 6층까지 각 층에 위치한 그룹스터디실은 각 층의 안내데스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4층의 집중열람실 역시 2층 로비에 있는 키오스크나 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리를 미리 선택해야 한다. 집중열람실은 소음에 민감한 학우들을 위해 조용한 독서실 분위기가 유지된다. 6층에는 ‘Design & IT 정보센터’와 ‘멀티미디어실’도 마련돼 있다. 정보센터에 노트북을 준비해 가면 듀얼 모니터 기능을 사용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하다. 멀티미디어실에서는 DVD를 대출해 관 내에서 다양한 영화 및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다.

대출·반납·연체·예약·연장 서비스는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된다. 오프라인 대출을 위해서는 학생증 지참이 필수다. 온라인으로는 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e-Book 대출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학부 재학생 1회당 최대 15권을 대출할 수 있으며 기간은 15일이다. 모든 학생은 학술정보관에서 진행되는 ‘도서관 이용 교육’을 이수해야 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납은 2층 로비 인포메이션데스크와 외부 반납함을 통해 가능하다. 퇴학·졸업을 앞둔 학생의 경우 학적이 확정되기 전 대출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도서가 연체된 경우에는 1일 100원의 연체료가 발생하며, 현금으로만 지불할 수 있다. 만약 빌리고자 하는 도서가 이미 대출됐다면 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대출을 연장하고 싶다면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My Library’를 이용하면 된다. 단, 하루라도 연체료를 시에는 연장이 불가하다.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동일 도서와 함께 등록 코드와 보안 태그 등의 비용인 ‘정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지원도 이뤄진다. 국내외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본교가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e-Book ▲연속간행물 ▲비도서 ▲학위논문 등을 포함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온라인 자료도 검색이 가능하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자료는 학술정보관 내에서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교 대학원 출신 학생들의 학위 논문도 열람이 가능하며, RISS 통합검색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내외 논문을 찾을 수 있다. 만약 본교 학술정보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제공받고 싶다면 학술정보

관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자료 신청이 가능하다. 혹은 타대학열람의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자료 검색뿐만 아니라 ‘학습연구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학습연구지원에는 ▲상상독서 ▲과제도서 ▲정보활용교육 ▲원문복사 신청 ▲상호대차 신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 ‘상상독서’는 독서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 인증서 및 포트폴리오 발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과제도서’는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 혹은 부교재이며,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열람 가능하다. 단, 과제도서는 참고 도서이므로 대출은 불가하다. ‘정보활용교육’은 학술정보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이용자 교육 중 하나로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다. ‘원문복사 신청’과 ‘상호대차 신청’은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 및 도서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논문표절검사 ▲학위논문제출 등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웹 홈페이지와 연결돼 정보 탐색을 할 수 있는 ‘Browse’도 마련돼 있다. 해당 서비스에는 ▲학술DB ▲e-Journals ▲e-Learning ▲e-Book ▲독서요약서비스 ▲오디오키오서비스 등이 있다. 국내외 학

술 데이터베이스인 ‘학술DB’와 학술지 논문을 제공해주는 ‘e-Journals’를 통해 다양한 사이트 검색이 가능하다. ‘e-Learning’에서는 토익·토플 모의고사,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 영어 회화, 제2외국어,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국내외의 다양한 ‘e-Book’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국내 e-Book 사이트로는 한성대학교 전자책 도서관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URL로 접속해 국내외 전자책 열람이 가능하다. ‘독서요약서비스’는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의 내용과 차례에 대해 간략히 정리된 요약본을 음성과 텍스트 파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며, ‘오디오키오서비스’는 눈이 아닌 귀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신착자료’, ‘Publication Finder’ 등의 검색 기능도 사용 가능하다.

학술정보관은 학기 중과 방중 운영 시간이 상이함으로 이용 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조용훈(학술정보팀) 팀원은 “신입생들이 과제나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학술정보관의 문을 두드려주면 좋겠다. 학생들을 위해 최대한 서비스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이런 학생 기구 또 없습니다

* 본 기사는 해당 기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됐습니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김산(사회과학 3) 총대의장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학생자치기구 중 '숨은 일꾼'으로 불린다. 총학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을 제공한다면, 총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했는지 점검하기 때문이다. 최고 감사기구인 총대는 ▲예산안 인준 및 감사 ▲학생회칙 개정 ▲총선거 ▲대의원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38대 총대 '순백'은 감사국, 사무국, 정책국, 홍보국, 기획국, 운영국으로 이뤄졌다. 감사국은 학생회비 지출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사무국은 총대 내부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정책국의 주된 업무는 학생회칙 개정이다. 홍보국은 홍보물 제작 등을 맡고, 기획국은 총대가 진행하는 행사를 기획한다. 마지막으로 운영국은 대의원 및 상임위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의원과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재학생이라면 총대에 지원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가 총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한 조건이다. 김 의장은 "학업과 동시에 학생자치기구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대의원과 상임위원으로서 감사 활동도 중요한 역할이기에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조현기(기계 2) 학생복지위원장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는 말 그대로 교내 복지, 즉 학생들의 일상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자치기구다. 학생들이 학내에서 편하고 알찬 대학 생활을 누리도록 물품 대여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학복위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이외에도 제39대 학복위 '하늘'은 각종 제휴 사업과 야간 순찰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복위는 정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6개 부서인 정책국, 총무국, 홍보국, 운영국, 기획국, 연대국으로 이뤄졌다. 정책국은 학복위의 공약 이행을 위해 활동하며, 총무국은 1년간 진행할 사업의 예산을 계획하고 사용한 예산 내역의 감사 자료를 만든다. 홍보국은 매달 제작하는 정보성 캘린더와 각종 홍보물의 제작을 담당하며, 운영국은 상주 사업과 행사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규율대 등을 주도한다. 기획국은 학복위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의 기획을 맡고, 연대국은 SNS 관리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학우들과 소통한다.



신입국원 지원은 개강 전후로 네이버 폼을 통해 가능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단체에 잘 융화될 수 있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학복위의 일원이 되신다면 단체 생활의 추억을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승빈(IT응용 3)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모든 학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생자치기구다. 대학본부의 결정에 대해 학생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생들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불편 사항을 해결해 전반적인 생활권도 보장한다. 대학본부와 진행되는 학생대표 간담회를 통해 학생과 학교의 가교 역할도 수행한다.

▲신입생 OT ▲축제 ▲졸업식 등 큰 규모의 행사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총학이다. 제37대 총학 'BASE'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필두로 정책국, 홍보국, 기획국, 운영국, 졸업준비국, 사무국, 대외협력국 등 총 7개의 부서로 구성됐다. 정책국은 사업 강화를 위해 총학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부서이며, 홍보국은 총학이 운영하는 행사 홍보를 위해 SNS 관리·홍보물 제작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국은 행사 기획을 맡고, 운영국은 총학 내부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존재한다. 졸업준비국은 학사복 관리 등 졸업 관련 직무를, 사무국은 일반 사무를, 대외협력국은 대외적 활동과 제휴 업체 사업을 담당한다.

총학은 개강에 맞춰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강한 신입국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 회장은 "총학은 학생 여러분께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 찬 2022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기리(컴공 3) 전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각 동아리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더해 동아리 소개,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한다. 동연 역시 학생자치기구인데, 동아리 소속원들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면 활동이 축소되면서 대다수의 동아리가 존속 및 활동에 있어 위기를 맞았다. 2022년도를 책임질 동연도 구성되지 못해 오는 3월 치러질 재선거에서 제36대 동연 선거운동본부가 선출될 예정이다.

제35대 동연은 회장과 부회장 지휘하에 정책국, 운영국, 홍보국, 지원국으로 구성됐다. 정책국과 운영국의 구성원은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각 동아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 홍보국은 영상 제작 혹은 포스팅 등을 통해 동아리 홍보를 담당했다. 지원국은 다른 부서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동아리와 동연의 가교를 맡았다. 동연은 매해 부서의 구성이 달라지기에 제36대 동연의 활동은 변할 수 있다.

동연은 개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며 대체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띠는 편이다. 나 전 회장은 "동아리 가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동연에서 진행하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혜림(인문 2) 편집국장

한성대신문사(이하 신문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제3자로서 사태를 관조하는 관찰자,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앞서 체험하고 전달하는 선협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의 눈이자 귀가 되어 하는 대학언론의 정도를 걸으며,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대학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편집국과 보도부, 사회부, 기획부로 구성돼 있는 신문사의 구성원으로는 편집국장과 부편집국장, 부장기자, 정기자, 수습기자가 있다. 모든 기자는 신문 제작 전 과정에 일조하며 아이템 기획·취재·원고 마감·조판 등의 일정한 패턴을 수행한다. 신문 제작 외에도 ▲국회 및 당사 파견 취재 ▲다양한 교내·외 교육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및 기성 언론사 연합 활동 등의 경험도 쌓을 수 있다. 다양한 업무를 해내는 과정은 흔하지 않은 경험일 뿐 아니라 모든 과정의 결실은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수 있다.

수습기자 선발은 3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 국장은 "본사는 학생이 알고 싶은 정보, 알아야만 하는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소통의 창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보 등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임채은(인문 2) 편집국장

한성대학교 영자신문사는 교내 언론사 중 하나로 영어로 기사를 다루며 본교 구성원, 특히 한글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학생들에게 유용한 소통 창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영자신문사의 <HANSUNG TODAY>는 학생들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영자신문사는 편집국장과 부편집국장, 부장기자, 정기자, 수습기자로 이뤄져 있다. 기존 취재부, 문화부, 특집부로 구성돼 기사를 작성하던 영자신문사는 올해부터 개편을 통해 3개 부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학내 사안에 중점을 뒤 3월부터 발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사 작성 ▲내부 회의 및 점검 ▲본교 내·외국인 교수님 교정 등을 거쳐 기사를 발행하고 있다.

3월 이후 신입생 위주로 진행될 수습기자 선발에서 지원자에게는 영작이 요구된다. 영작이 필요한 이유는 완성된 실력자만을 뽑기 위함이 아닌 표현력과 어휘 선택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임 국장은 "처음에 관심이 없는 채로 들어오신 분도 영어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 곳이 영자신문사이기 때문에 대학 내 보람찬 활동을 원하신다면 감히 지원을 추천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장서영(인문 2) 실무국장

한성대학교 방송국 HBNS은 한성프레스센터에서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기구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캠퍼스 정보, 트랙 설명 등 정보성 영상에 더해 ▲월간 뉴스 ▲라디오 콘텐츠 ▲축제 현장 등도 전하고 있다. '자유'의 소리, '진실'의 소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방송국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함에 중점을 둔다.

실무국장과 부국장, 기획팀, 아나운서팀, 촬영팀, 편집팀으로 구성된 방송국은 이번 수습국원 선발에서 신입생만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획팀은 영상의 구성안을 기획하고, 아나운서팀은 영상 출연 및 녹음이 주된 업무다. 촬영팀과 편집팀은 영상의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다. 어떤 팀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성취감과 성장의 기회는 방송국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

신입국원 선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책임감이다. 방송국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낼 국원을 기다리고 있다. 전공·진로와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장 국장은 "방송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수습국원에 많이 지원하셔서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지인(인문 3) 공식 홍보대사 회장

본교 공식 홍보대사는 '함께하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뜻을 가진 '하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랑은 본교의 대표 얼굴로서 재학생에 대해 외부인에게 한성대학교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하랑은 고교 입시 설명회, 수시·정시 박람회와 같은 외부 일정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교내 행사에서 의견을 맡거나 진행을 담당한다. 회장과 기획팀, 인사팀, 미디어팀의 팀장인, 각 팀의 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상 15명 내외의 인원으로 활동한다. 기획팀은 ▲재학생 이벤트 ▲카드뉴스 제작 ▲SNS 관리 등을 이끈다. 인사팀은 하랑 내부의 결속력을 위해 내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활동 내역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디어팀은 영상 콘텐츠의 촬영과 편집을 도맡는다.

신입 홍보대사 선발은 1차 관문인 서류 심사를 통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2차 면접 및 약 10분간의 자기 홍보 시간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팀 지원자는 별도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임 회장은 "홍보대사 활동은 일반 학생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홍보대사가 아니더라도 학교에 소속감을 가진 채로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을 밝히는 펜이 되어라

한성대신문사에서 제 52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자 우대

주요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및 사진 촬영
- 레이아웃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평가회의

지원방법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활동지원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모집기간

3월 11일(금) 23시 59분까지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